

고흥군, 환절기 읍·면 순회진료 지속 추진

혈압·혈당 검사부터 한방·치과 진료까지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



한방 침 및 물리치료 사진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환절기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일 점암면 사동마을에서 ‘읍·면 순회진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리적 여건이나 거동 불편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꾸준히 펼치고 있다.

특히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급격한 기온 변화로 혈관이 수축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이 커지는 만큼,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사전 관리와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날 현장에서는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및 골다공증 검사 등 기초건강검진 ▲만성 통증 완화를 위한 한방 침 및 물리치료 ▲맞춤형 구강관리를 위한 치과 진료 등이 원스톱으로 제공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안겼다.

/이유빈 기자

보성, 지적재조사 7개 지구
경계 확정 임박

보성군은 21일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인 조성·노동·회천면 일대 7개 지구, 1,838필지의 경계결정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군은 노동면 금호1·2지구, 조성면 우천1·2지구, 회천면 군농1지구 등 5개 지구의 경계결정을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7월 경계결정을 마친 조성면 귀산1지구와 노동면 거서1지구를 포함해 2025년 사업 대상 7개 지구 전체의 경계결정을 완료했다.

군은 이번에 경계가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다. 결정된 경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성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된 경계가 확정되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관련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한다.

/김윤성 기자

해남, 로봇 체험·가족 진로
캠프 참여자 모집

해남군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해 서민 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의 착한가격업소 32개소에 물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물품 구입비는 업소당 8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각 업소가 직접 구입한 후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서와 영수증을 군에 제출하면 구입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해남군의 올해 직접 지원 규모는 업소당 최대 191만원에 달한다.

앞서 군은 상반기 동안 쌀, 위생용품 등을 일괄 구매하여 업소에 전달했으며, 전기요금도 업소당 연 21만원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해남사랑상품권 특별 환급 혜택도 8월부터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관내 착한가격업소에서 해남사랑상품권 카드 또는 QR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7%를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박종욱 기자

진도, 한우 나눔으로
복지시설 지원

(사)전국한우협회 진도군지부(지부장 김상진)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250만 원 상당의 한우 60kg을 진도군에 기부했다.

기부된 한우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돼 시설 이용자들의 식생활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는 시설 이용자들의 먹거리를 지원하고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한우협회 진도군지부는 지난 2021년에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300만 원 상당의 한우곰탕 500개를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먹거리 나눔은 이웃을 살피고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과 복지시설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장흥군, ‘촘촘한 통합돌봄’
신규자 교육 실시

장흥군은 지난 20일 통합돌봄 업무를 새롭게 담당하는 읍·면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신규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통합돌봄 업무를 처음 맡은 담당자들이 사업의 추진 방향과 업무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대상자를 발굴·상담하며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통합돌봄의 개념과 추진 배경, 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체계, 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 욕구조사와 서비스 연계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돌봄 욕구를 파악하고 보건·의료·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실무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김정근 기자

완도군, 가을철 산불 방지 대응 체제 돌입...예방·감시 강화

임차 헬기·진화대 배치하고 불법 소각 감시 및 입산 통제 강화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 활동 모습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군은 기후변화로 인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대형 산불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

최근 산림 인근 주택에서 생활 쓰레기 소각,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충, 해충, 잡초 등을 제거하기 위한 논밭 태우기로 9~10월 사이 9건의 화재가 발생하면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산불 예방 문자를 군민에게 발송하고, 산불 진화 차량을 활용한 계도 방송 확대, 이장 회의 시 산불 방지 대책 홍보, 산불조심 현수막 게시 등 산불 예방 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산불 방지 대응 체제 돌입에 앞서 전문 진화대 인력을 선발하고

각종 진화 장비 점검, 읍면 산불 예방·대처 요령을 점검할 계획이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배치, 산불 예방 감시용 고정 카메라 운영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군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원천 봉쇄하고자 관내 전 산림에 대해 인화물질 휴대 금지 등 산불 예방 금지행위 공고,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상왕산 등 10개소 2,870ha의 산림에 대해 등산로 폐쇄 및 입산을 통제한다.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소각행위 등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소각행위자에 대해서는 1차는 50만원, 2차는 100만원, 3차는 2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가영 기자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섬진강변을 달리는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 요술랜드, 동물농장 등
익숙함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테마파크

장소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

